

스포츠동아

2015년 1월 6일 화요일 sportsdonga.com 20판



LPGA 데뷔 앞둔 백규정
“US여자오픈 우승이 목표”

6면

프로농구 경기 결과		5일
kt 76 : 62 모비스	우리은행 73 : 59 KDB생명	여
프로배구 경기 결과		5일
대한항공 3 : 1 LG손보		남

“형제 스파링? 내 얼굴 때리기 싫어요”

국가대표 선발전 1위 임현철-현석 쌍둥이 복서, 리우올림픽을 향하다



복싱국가대표 임현철(오른쪽)-임현석(20·이상 대전대) 쌍둥이 형제는 한국복싱의 떠오르는 샛별이다. 대전대 한정훈 감독은 “전도유망한 선수일 뿐 아니라 효심 또한 지극하다”고 칭찬했다. 둘의 꿈은 2015도하세계복싱선수권에 동반 출전한 뒤 2016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에서 함께 메달을 획득하는 것이다. 아래 작은 사진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태릉선수촌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모습. 오른쪽 흰색 트레이닝복을 입은 선수가 형 임현철이다.

사진제공 | 대전대·복싱대표팀



김현수 연봉 7억5천만원

예비FA 프리미엄...FA 제외 역대 최고액

“최고연봉이라고, FA라고 신경 쓰지 않습니다. 원래 하던 대로 제 야구를 할 겁니다.”

두산 김현수(27·사진)가 5일 2015시즌 연봉 7억 5000만원에 계약했다. 지난해 연봉 4억5000만원에서 3억원(66.7%)이 인상된 파격적인 금액이다. 이로써 그는 프리에이전트(FA) 및 해외복귀선수를 제외하고 한 국프로야구 역대 최고 연봉자로 이름을 올렸다.

●7억5000만원의 의미

김현수는 올 시즌이 끝나면 FA 자격을 취득한다. 시즌도 시작하기 전부터 FA최대어로 주목받고 있다. 그 도 그럴 것이 그는 두산뿐 아니라 국가대표 불박이 외야수다. ‘타격기계’라는 수식어가 불을 정도로 타격 메커니즘이 좋다. 최대장점은 꾸준함이다. 확실한 주전 외야수로 자리매김한 2008년부터 매년 120경기 이상을 뛰었고, 2012년(0.291)을 제외하고 매 시즌 타율 3할을 기록했다. 지금까지 특별한 부상도 없었고, 국제경기를 치르고 난 직후에도 정규시즌부터 포스트시즌까지 묵묵히 소화하는 놀라운 체력을 자랑하고 있다.

두산 김승영 사장은 예비FA 김현수에 대해 “무조건 잡는다”고 선언했고 7억5000만원이라는 거액을 안겼다. 확실한 예비 FA프리미엄이다. 계약을 진행한 김승호 운영부장은 “비단 FA프리미엄뿐 아니라 김현수가 두산의 간판스타로서 지난 8년간 활약한 부분을 높이 샀다”고 연봉 책정 기준을 밝혔다.

●속전속결 1초에 계약체결

두산과 김현수의 계약은 속전속결로 진행됐다. 여차피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었다. 김현수는 협상테이블에 앉자마자 ‘사인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바로 볼펜을 손에 쥐었다. 금액의 문제가 아니었다. “언제나 그랬듯 연봉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냥 들어가자마자 곧바로 사인했다”는 게 그의 얘기였다. 실제 김현수는 비(非)FA 역대 최고연봉자가 됐지만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물론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은 것은 기쁘다. “구단이 신경을 많이 써주셨다. (그동안 노력을) 인정해주신 것 같아 고맙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러나 그의 머릿속에는 ‘FA’나 ‘최고연봉’보다 중요한 게 있다. ‘앞으로 어떻게 하면 야구를 더 잘 할 수 있느냐’.

▶8면으로 이어집니다

홍재현 기자 hong927@donga.com 트위터 @hong927

편집 |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 트위터@sadzoo

1분 간격으로 태어난 일란성 쌍둥이 복싱체급 달라
오른손잡이 형 인파이터...왼손잡이 동생 아웃복서
올림픽 동반 메달 목표 “한 명만 따면 소용 없어요”

한국복싱은 2014인천아시안게임에서 금2·은3·동1계를 따내며 부활의 찬가를 불렀다. 아시안게임 금메달 수확은 2002부산대회 이후 무려 12년 만이었다. 특히 고무적 사실은 현 대표팀을 이끄는 주축이 대부분 20대 초반의 어린 선수들이란 점이다. 이들이 국제대회 경험만 쌓는다면 2016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에서도 호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복싱 관계자들은 올해 임현철-임현석(20·이상 대전대) 쌍둥이 형제를 주목하고 있다.

형 임현철은 인천아시안게임 라이트웰터급(64kg)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며 이름을 알렸다. 라이트급(60kg)의 동생 임현석은 2012년런올림픽 은메달리스트 한순철(31·서울시청)에게 간발의 차이로 밀려 인천아시안게임 출전이 좌절됐지만, 2014대표선발전에서 돌풍을 일으켰다. 현재는 형제가 모두 태극마크를 달고 있다.

둘은 지난해 12월 강원도 양구에서 열린 2015국가대표



1차 선발전에서 모두 자신의 체급에서 1위를 차지했다. 4월 최종 선발전에서 우승한 뒤 7월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시아선수권에서 6위 이내에 들면, 10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되는 세계선수권에 출전할 수 있다.

●얼굴·성격은 판박이, 복싱 스타일은 정반대

임현철-현석 형제는 1995년 5월 12일 1분 간격으로 태어난 일란성 쌍둥이다. 어린 시절부터 운동을 즐겼던 형제는 대전 동산중 1학년 때 복싱에 입문했다. 형이 체육선생님의 권유로 1주일 먼저 글러브를 끼었고, 동생이 뒤 따랐

다. 임현석은 “사실 축구를 좋아했지, 복싱이 뭔지 전혀 몰랐다. 복싱을 시작한 것 자체가 형의 영향 때문이었다. 이미 그때부터 우린 항상 함께 가자고 다짐했다”고 밝혔다.

둘은 얼굴 생김새는 물론이고 명랑하고 쾌활한 성격까지 판박이다. 그러나 복싱 스타일은 정반대다. 오른손잡이인 형이 완벽한 인파이터라면, 왼손잡이인 동생은 철저한 아웃복싱을 구사한다. 복싱대표팀 이육성(35·2005세계복싱선수권 금메달리스트) 코치는 “임현철은 쉴 새 없이 상대를 몰아붙이는 파이팅이 좋다. 반면 임현석은 발이 빠르고 영리한 것이 감점”이라고 설명했다.

●“내 얼굴 때리기 싫어요.” 형제끼리 스파링은 사절!

이렇게 정반대의 경기 스타일을 지니게 된 이유가 있다. 복싱에 입문한지 얼마 되지 않아 지도자가 물었다. “너희 인파이터 할래, 아웃복싱 할래?” 형제는 어린 시절부터 쌍둥이라는 이유로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신발을 신는 것이 싫었다. 임현석은 “쌍둥이 티를 내는 게 너무 부끄러웠다”고 말했다. 복싱에서만큼은 서로 다른 색깔을 덧입히고 싶었다. 자연스럽게 발이 빠른 동생이 아웃복싱을 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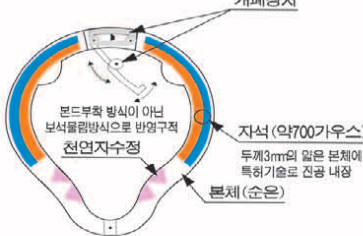
▶2면으로 이어집니다

전영희 기자 setupman@donga.com 트위터 @setupman11



대표이사 서영숙

수술 없이 강한 남자!!
20대의 막강 파워! ‘뉴 맨’!



면상시 사이즈	뉴맨 제작
6.5이하	초대
6.5cm	1호
6.75cm	2호
7cm	3호
7.5cm	4호
7.75cm	5호
8cm	6호
8.25cm	7호
8.5cm	8호
8.75cm	9호
9cm	10호
9.25cm	11호
9.5cm	12호
9.75cm	13호
10cm	14호
10.25cm	15호
10.5cm	16호
10.75cm	17호
11cm	18호
11.25cm	19호
11.5cm	20호
11.75cm	21호
12cm	22호
12.25cm	23호
12.5cm	24호
12.75cm	25호
13cm	26호
13.25cm	27호
13.5cm	28호
13.75cm	29호
14cm	30호
14.25cm	31호
14.5cm	32호
14.75cm	33호
15cm	34호
15.25cm	35호
15.5cm	36호
15.75cm	37호
16cm	38호
16이상	중대

세월 앞에 장사 없다!!
세월의 흐름을 가장 먼저 느끼는 남성의 심벌
힘도 약하고 중간에 시들키고 사이즈도 작아지고

특허청 최초 발명특허!
발명의 명칭 “남성 성 기능 강화용 링”
세계최초 유일의 3개 부분 발명특허
2.5mm마다 차별화된 38가지 사이즈 ‘뉴맨’

사용 즉시 나타나는 막강 파워!
1.힘이 약하다 ➡ 20대의 막강 파워!
2.잘 시들키다 ➡ 끝까지 강력하게!
3.작고 빠르다 ➡ 20~30% 더 커져서 오래도록!
4.확대시술 후 약화된 강직도 ➡강하고 단단하게!

15일간 사용해보고 이유 없이 반품, 환불

T.1577-5579,010-7636-3346

세계인의 자존심 '뉴맨'
출시 10년만에 60만고객돌파 일본과 중국 지사 설립
동남아 국가를 비롯하여 전 세계 20여개국 판매
핸드폰 주소창에서 뉴맨.kr 을 입력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www.newm.kr

서울시 서초구 바우외로9일 20
(우면동) (주)케이앤제이스포츠

안녕하세요, 영화배우 이동준입니다.
“세월의 흐름에 점점 약해져가는 당신,
강력했던 위상과 자존심마저 약해져 갑니다.
아스라해진 그때의 힘, 절정의 시간들,
뉴맨이 되돌려 드립니다.”
이동준의 ‘뉴맨!’
“최고의 남자로 다시 태어납니다.”